

광산구 1금고 재심의 통해 다시 선정 검토

금고 선정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국민은행과 계약 중단 공공성·공정성 침해...농협측 가치분 신청 받아들여져

광주 광산구가 KB국민은행과 체결하려 한 구 금고 운영 계약이 심사위원 명단 유출에 따른 공공성, 공정성 침해로 중단됐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법원은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에서 탈락한 농협이 신청한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광산구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국민은행과 1금고 지정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24일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30년 만에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000만원을 제시했고, 금리도 1400억원의 예치금을 3년간 맡겼을 때 이자 수익이 농협보다 약 23억원 많은 2.12%를 제안했다.

농협은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한 국민은행이 막후 로비를 펼쳐 공정하고 투명

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달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달 13일에는 본안소송까지 제기했다.

금고선정 심의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은 농협 측 이의제기로 광산구 자체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심의 절차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 한 광산구 6급 공무원은 심사위원 명단을 농협과 국민은행 양쪽에 모두 건넸다고 자백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1명도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다.

광산구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농협과 금고 운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심의, 재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심의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제출한 제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고, 재선정은 원점에서 금고 운영기관을 다시 공모하는 절차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재공고를 하기 보다는 그동안 농협이 요구해 온 대로 재심의 절차를 통해 1금고를 다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년 단위로 체결한 농협과의 1금고 운영 약정은 이달 말 끝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해군 광주함 장병들이 '빛고을 투어' 해군 광주함 장병들이 13일 광주시 남구 사직전망대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타지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광주 전 남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체험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나광주 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 산하기관 홍보성·출연금 예산 대폭 칼질

군공항 이전·공무원 복지비도...5조830억 내년 예산 의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방만한 운영 등으로 지적을 받은 광주시 산하기관 출연금 등을 대폭 삭감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5조83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13일 본회의로 넘겼다.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4조5139억원) 대비 12.6%인 5691억원이 늘었다.

예결위에서는 일반회계 기준 사업별로 92건 98억원이 증액됐고, 120건 169억원

은 감액됐다. 특별회계는 12건 44억2700만원 증액됐고, 11건은 44억2700만원 감액됐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31건 95억1400만원이다.

특히 시정 홍보성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시민홍보 민간컨설팅 8000만원, 시정 여론조사 1억5000만원, 공식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 6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시민권익위원회 운영비와 참석비 각각 1360만원, 4880만원이 깎였다. 임용장 커

버 제작비 600만원, 명예시민 메달·명예시장 패 제작비 1500만원이 삭감돼 각각 1000만원, 500만원만 남았다.

산하기관의 출연금도 일부 삭감됐다. 행정 사무조사가 예정된 광주복지재단 출연금은 5500만원이 삭감, 17억2900만원이 반영됐다. 광주디자인센터,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그린카진흥원 각각 5000만~1억원이 삭감됐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군 공항 이전사업비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5억원)는 사업 진척이 안 된 만큼

삭감됐다. 이 밖에 대기오염측정비도 7억 3000만원이 전부 깎였다. 직원 복지비인 여성 전용 헬스장 설치비는 2000만원이 깎였다. 청사 방호 시설 설치비, 커튼 교체비는 각각 3억원이 편성됐지만, 전액 삭감됐다.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증액됐다. 양산타운 주변 도로 개설 4억원, 미라보 사거리~각화 사거리 보도 정비 3억원, 대용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2억원, 면류관 교회 인근 도로 개설 4억원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예결위 심의를 거친 내년도 본예산을 14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농성역에 청년창업 플랫폼

창업사무실·세미나실 갖춰 14개 업체 입주 예정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에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청년창업 플랫폼이 들어섰다.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3일 지하철 1호선 농성역 지하 1층 썬큰광장에서 이용섭 시장, 임미란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성호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형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이천세 청년창업사관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청년창업 플랫폼' 개소식을 했다.

'도시철도 청년창업 플랫폼'은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경제력이 열악한 청년 사업가들의 창업 보금자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선7기 일자리 만들기 협업 아이디어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억6000만원을 투입해 농성역 지하 여유 공간 248㎡(75평)에 창업사무실 10개, 세미나실 1개소를 조성했다. 이 공간에는 전문 위탁기관인 호남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14개 업체가 입주한다.

특히 농성역 청년창업 플랫폼은 창업공간으로서의 기능과 각종 세미나는 물론 지역 안팎의 각종 창업 및 일자리 정보를 유관기관·단체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한다. 또 플랫폼을 찾는 다양한 구인·구직자들에게 정보안 내 창구로서 역할도 하게 된다.

광주시는 농성역 '도시철도 청년창업 플랫폼'을 통해 연간 50명의 일자리 창출, 창업 인큐베이팅 허브, 상설 창업·일자리정보 공유센터, 비즈니스 활동, 기타 시장·관광·도시철도 1·2호선 홍보, 지하철 수송 증대 등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325만㎡ 대상...AI창업단지·국립심혈관센터 등 들어서

광주시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첨단3지구는 첨단 1·2단계와 연계한 연구인프라 구축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의 입지 예정지다.

이번 개발사업은 북구 오동동·대촌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남면 일원 총 379만㎡(115만평)를 2025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며, 이중 325만㎡(85%)가 개발제한구역이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전국적으로 5곳이 지정돼 있으나 대부분 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사실상 첫 번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지 내에 조성하는 '인공지능(AI) 중심 창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연구·산업 응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주력산업인 '의료 융생체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치과, 정형외과 등 기업들의 집적화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첨단3지구는 남구 에너지밸리산업단, 빛그린산업단과 함께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기반 구축,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지역 고용혁신 프로젝트' 3년 연속 1위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대규모 일자리사업인 '지역 고용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고용노동부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한 전남도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플랫폼 구축·에너지신산업 인력 양성·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 4.0 사업 등 4개 분야 12개 일자리 창출사업이 그 기반이 됐다. 이를 통해 내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국비 95억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국비는 일자리 기반 강화, 에너지신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산업단지 활성화, 고용위기사업 등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활용한다.

김정완 전남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전국 최다 국비 확보는 도의 일자리 프로젝트가 정부 일자리사업 방향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시대의 흐름과 지역 특성을 담아내는 참신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화우·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